

2025년 7월 4일(금) 정기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7월 4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부산광역시 보도자료



담당부서 : 해양자연사박물관 전시팀

유 형 : 전시

사진유무 : 사진있음 ☐ 사진없음 ☒

관장	이향숙	051-550-8801
팀장	오세호	051-550-8822
담당자	배효원	051-550-8825

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, '2025년 기획전, '실린이의 모험' 개최

- ◆ 내년(2026년) 2.22.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'살아있는 화석' 실러캔스 기획전 열려
- ◆ 살아있는 화석 물고기 실러캔스와 '살아있는 화석의 오해와 진실'이라는 주제로 재미있고 유쾌하게 기획, 총 3부로 구성
- ◆ ▲미로 탐험 ▲스탬프투어 ▲관련 독서 등 다양한 체험 코너도 마련, 모든 전시는 무료로 관람 가능

□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(이하 박물관)은 오늘(4일)부터 내년(2026년) 2월 22일까지 197일간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「2025년 기획전, '실린이의 모험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전시는 박물관이 개최한 해양자연사분야 기획전시로 박물관 대표 전시품인 실러캔스* 화석을 통해 살아있는 화석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자 기획됐다.

* 실러캔스: 실러캔스목의 바닷물고기. 고생대 데본기에 등장해 중생대 백악기에 공룡과 함께 멸종했다고 알려졌으나 1938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근 찰룸나(Chalumna)강 부근에서 발견되어 큰 이슈가 됐다. 지느러미가 다리 형태와 비슷하게 빠와 살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생대에 산출된 화석과 형태가 유사하여 '살아있는 화석'이라 부른다. 서인도양과 인도네시아 인근 바다에 주로 분포한다.

○ 특히, 실러캔스의 생물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화석의 오해와 진실 코너 등 해양자연사를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.

□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, 국립부경대학교박물관 등 여러 기관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유물 및 소장 표본 50여 점을 전시할 계획이다.

□ 전시는 ▲1부 <실러캔스의 모든 것> ▲2부 <실린이의 친구들> ▲3부 <실린이와 함께 모험을>, 총 3부로 구성됐다.

- 1부 <실러캔스의 모든 것>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실러캔스가 발견된 193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. 실물 화석 표본과 사진을 통해 실러캔스에 대해 살펴보고, 실러캔스가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연구됐는지를 쉽고 재밌게 설명한다.
- 2부 <실린이의 친구들>에서는 살아있는 화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통해 진화하지 않았다거나 3억 년 전부터 생존해왔다는 오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, 화석과 실물 박제 표본을 비교해본다.
- 3부 <실린이와 함께 모험을>에서는 실러캔스와 함께 지질시대를 모험한다. 특히 전시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탐험지를 완성하는 미로 체험과 연계한 스탬프투어를 즐길 수 있다.

□ 이외에도, ▲미로 탐험 ▲스탬프투어 ▲관련 독서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됐다.

- ▲실린이와 함께 지질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게임을 즐기고 ▲미로를 탐험하며 스탬프투어를 완성하고 ▲실러캔스와 화석 관련 책을 읽어보고 ▲백만 년 후에도 살아남아 있을 생물에게 투표하고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.

□ 전시는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누리집(busan.go.kr/sea)을 참고하거나 전화(☎ 051-550-8825)로 문의하면 된다.

□ 이향숙 시 해양자연사박물관장은 “이번 기획전은 실러캔스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재미난 구성을 통해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”이라며, “많은 시민이 이번 전시를 통해 화석에 대해 친근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 라고 전했다.

